

김제 관아(동헌)에 심어져 있는 회화나무

✳	지정번호	김제-9-16-21-1	✳	전북 김제시 교동 7-3
	지정년도	1992		35° 48' 02.85" N
	관리기관	김제		126° 52' 55.99" E
	수령	341년		
	수고	17m		
	흉고둘레	2.7m		

출세한 사람이나 양반들이 좋아하는 보호수(김제-9-16-21-1) 회화나무는 김제 관아의 동헌 건물 오른 쪽에 위치하고 있다. 회화나무의 나이는 341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7m, 가슴높이둘레는 270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0m 가량으로 무성한 편이 아니다. 원줄기는 높이 4.5m 정도에서 처음으로 가지를 내고 있으며, 그 위쪽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마디마다 여러 갈래의 작은 가지를 펼치고 있다. 줄기는 곧게 위로 올라간 듯하지만, 관아 건물의 정문 쪽에서 보면 왼쪽으로 기울어있다. 줄기 밑둥은 높이 1.5m 정도까지 충전재 처리의 외과수술 흔적이 있다. 위쪽 가지는 말라죽은 것이 있다. 생육상태는 보통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지만 보호수 회화나무가 있는 곳이 김제 동헌(전북유형문화재)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회화나무는

김제 관아를 들어서면 바로 보이며, 그 뒤쪽으로 김제 내아(2022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예고)가 자리하고 있다. 회화나무는 동헌 옆의 오른쪽에 있고, 동헌과 내아 사이에도 팽나무, 은행나무 등 다른 고목이 자라고 있다. 김제 동헌은 고을의 공무를 수행하던 관아 건물이다. 1667년(현종 8년)에 처음 지었으며, 1699년(숙종 25년)에 수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면 7칸, 측면 4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이다. 지방관리 가족이 생활하는 내아는 유일하게 동헌과 함께 남아있어 건축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내아는 일반적으로 동헌과 멀리 떨어져 있으나 이곳은 동헌과 내아가 가까이 있다. 한편, 보호수 회화나무가 있는 김제 관아 바로 인근의 성산공원과 김제향교에도 아름다리의 보호수와 함께 여러 고목들이 자라고 있다.

